東亞日報

本紙六面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金鐵中
印刷人 趙宜淳

關稅會議와 日本의 立場

去月二十六日豫定대로開催된 中國關稅會議에서는 段執政의 辭로부터 王（正廷）氏의 演說까지關稅會議의 中心이 關稅自主權問題에잇는것을 分明하엿다 이것도 勿論잇슬것이고 또 到底히 準備한것이 日本代表이다 그럼으로 日置全權의 意見은 以知하고 對應하야 川慕하야가지고나온 論說인그만큼 非上의 注目을 끌것이다 果然 王正廷氏의 關稅自主의 演說에 對한 日置全權은 原則上으로는 贊成한다고하는 同時에 中國에 對하야 同情하다는 것을 歷史的事實을 擧하야 累累히 陳述하엿스나 그러나 가장 緊要한 實行方面에 對하야는 아모리 滿足의 用意와 準備를 具有한日置全權이지만은 左右를 斷言하지못하고 要點을 巧妙하게 避한 것은 在來의 成功을 維持하엿다고 아니할수업다

二

다시말하면 五月三十日上海事件이 이러난後로 全國的으로 擴張된 愛國運動은 不平等條約改修를 要求함으로 段政府는 此에 붙니어서 暗然한 中에 이에 對한 計策을 크게하야 가던것이다 그리하야 米國으로하야금 이에 關한 國際會議를 開催하도록 運動하던것인데 七月上旬에이르러서 明敏하고 機敏한 術策이 생기엿나니 有名한 芳澤日本公使의 七月十日對中忠告가 이것이다 條約改正의 要求에 對하야 日本은 過去의 自國立場에 빗초여서 特히 中國에 同情하나 然이나 中國內의 排外運動이 鎭靜되지아니한 이때에 此種要求를 固執하는 것은 오히려 不得策이니 中國으로는 爲先現存條約上 義務를 遵守하는 同時에 關稅會議決議를 實施하도록 全力을 注하라는 것을 말하엿다

三

이와 가치 中國에 對하야 所謂忠告를 하엿스나 勿論 中國側에서는 何等의 反響이 아니하엿다 그것은 日本이 中國에 對하야 現在의 不平等條約을 그대로 强要하는 我利的 立場에서 出한 것인 줄을 充分히 解得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 忠告가 列國에 밋친 影響은 莫大하엿스니 첫재 米國으로 말하면 [illegible] 이로 因함인지는 알수업나 十月十四日에 大統領쿨리지氏는 中國問題에 關한 列國會議를 開催하고 [illegible] 米國新公使도 米國政府는 要求를 [illegible] 中國을 援助하겟다는것을 말하엿合으로 不平等條約의 改修에 對한 國際會議에 對한 議論은 米國으로부터 起하엿다 이것은 分明히 日本의 近來外交의 成功이니 그럼으로 開催된 今番北京關稅會議에서는 第一着으로 日本代表가 自主權問題에 關하야 抽象的이나마 鄭重히 言及하지아니할수업게 된것이다

四

그리하야 日本은 어대까지던지 現狀維持를 希望하지만은 米國은 自國의 利害關係上 商工上으로 보아 門戶開放과 機會均等을 徹底[illegible]

平和會議開催

兩氏計劃에 段氏贊成

張作霖、馮玉祥兩氏는 平和會議를 開하라 고計劃中인바 段執政도 此에 贊成한다더라(天津二十九日發)

武裝的和平?

＝＝韓宗鶴、李景林兩氏는 連名으로 岳維峻의 軍隊는 軍裝缺乏 武器彈藥이 라하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河南에 對하야 充分히 責을 負한다고 張作霖氏에 打電하엿스나 一方段執政은 馮、張和議를 成立시키도록하야 馮의 意를 拒絕하고 頻頻히 奉天에 人을 派하엿는데 其內容은

一、京漢線을 國民軍手에 收케할事

二、李景林의 國民軍隊의 武備를 速히 解除할事

三、岳維峻에게 軍需品武器를 供給할事

四、國民軍으로 一時 李景林氏가 抑留한 軍資이 잇서 그것이 完全 國民軍의 手에 渡하기는 奉天派의 南方延長으로 大히 禍根을 殘할것이나 結局武裝的 和平이 될것이다(奉天二十日發)

奉軍海州占領?

白寶山出陣의 虛를 衝하야

海州에 入한 奉天軍은 白寶山의 部下 一千名의 武裝을 解除하엿다는 報가 中國側에 達하엿더라(靑島二十九日發)

裝甲列車修理

＝＝露兵의 運轉한 奉天軍의 裝甲列車는 目下 濟南에서 修理中이나 右는 蚌埠에서 聯合軍에 擊破되엿는데 該搭乘者外 다 破壞되어 露兵 四十名의 死傷者를 出하고 又는 逃亡하엿다는 說도 잇더라(靑島二十九日發)

奉浙軍遂衝突

徐州南方前線에서

情報에 依하면 去二十七日夜 徐州南方前線에서 奉浙兩軍은 遂히 衝突하야 奉軍의 一部는 浙軍에 擊退되엿다 二十八日夜 負傷兵員 數十名은 濟南에 送하엿더라(靑島二十日發)

孫軍蚌埠에 退却

＝＝執政府는 去二十九日 江蘇省 徐州에 잇는 山東督辦張宗昌氏로부터 孫傳芳軍과 戰端을 開始하엿스나 孫軍은 多數의 武器를 遺棄하고 安徽省 蚌埠에 退却하엿다는 報告에 接하엿더라(北京二十日發)

大戰期切迫?

江蘇軍主力出動

南京路로부터 歸來한 消息通의 談에 依하면 最近外지 南京을 動치안 엇든 江蘇軍의 主力은 去二十八日以來 津浦線에 依하야 輸送을 開始하엿다 同時에 江蘇軍의 陳調元、陳儀彦部下는 汽船을 鎭江에 向하야 出動하고 一方奉天軍도 續々히 上海攻擊設을 流布하야 浙江의 後方을 脅迫하고 잇는 바 此에 依하야 보면 近近大開戰의 期가 切迫한 듯이 觀測되더라(上海二十日發)

張氏討孫促急

＝＝張宗昌氏는 盛히 討孫을 急하고 잇는 바 荊士廉氏의 奇襲成功에 山東의 大軍을 一擧에 徐州에 集中하야 江蘇、安徽에 向하고 聯合軍이 또 此에 應戰할것이 나奉天軍은 最近聯合軍의 結束이 薄弱한 틈을 탈라고 하는듯 하더라(奉天電)

希勃戰端再開

勃牙利軍은 希臘西、伊太利의 現休會하기에 至하엿더라 地派遣公使館附武官의 臨監下에 한希臘軍에 占領되엿든 地域의 再占領을 開始하엿더라(巴里二十日發)

理事會休會

國際聯盟理事會는 希臘勃牙利間의 平和回復의 旨를 現地派遣聯盟國公使館附武官의 確報에 接하고 無期限으로 休會하엿더라(瑞典二十日發)

「로」地條約은 進步에 大一步

獨首相의 演說

「로카르노」條約에 獨逸代表首席의 「루터」首相은 昨夜「군어」市에서 演說하야 過去[illegible]

亡命中白露人 赤市民權附與

「로마노프」王朝倒壞以來 日本乃至 世界各地에 流浪의 旅를 繼續하고 잇는 亡命白系露國人도 今回在日露西亞大使館에서 十一月一日부터 明年四月三十日外지 大使館又는 領事館에 申請하면 다 사露西亞市民으로 登錄하고 完全한 市民權을 附與한다는 布告를 同大使館에서 發하엿다 그래서 白系露人도 赤市民權을 어더 사랑하는 故鄕에 도라가게 되엿더라(東京電)

回教徒救濟呼訴

『다』市攻擊의 佛態度를 攻擊

◇亞利比亞人執行委員會

『예살렘』에 잇는 亞刺比亞의 執行委員會는 全回教徒에 對하야 聲明書를 發表하고 「시리아」에 잇는 同部의 旣苦狀救濟에 助力하기를 訴하엿다고 하엿다 同時에 「다마스카스」를 攻擊한 佛國의 態度를 攻擊하엿더라(나우엔二十日發)

宗例內閣會議

二十一日의 日本定例閣議는 午前十[illegible]

露農英佛代表

位置를 交換

英國駐剳勞農代表 라콥스키氏 及 佛蘭西駐剳勞農大使 크라신氏는 其位置를 交換하고 『라콥스키』氏는 佛蘭西駐剳大使로 『크라신』氏는 英國駐剳代表로 任命되엿더라(英斯科二十日發)

『嚴格한訓鍊』

伊首相의 演說

伊太利首相은 國粹黨中央에 演說하야 日國粹黨의 發한 嚴格한 訓鍊은 政治經濟等 各方面에 必要한 것이 다 大戰後確定된 伊太利新國境은 決코 變更될것이 아니 다 그리고 萬若 此等의 國境에 危險한 境遇에는 予는 英皇帝陛下에게 劍을 把하기를 奏請하리라 하엿더라(나우엔二十日發)

新任印度總督

옷드氏被命

英國保守黨下院議員 옷드氏는 英領印度大使兼總督에 任命되엿더라(倫敦二十九日發)

赤露의 暗中飛躍

『카』氏北京來不遠

馮王兩氏와 聯絡하야

關稅會議開催에 際하야 미리 가다 蘇聯行은 露西亞에 取하야 將來大리 엇든 露西亞는 突如 關稅會議 中에 有利한 地位를 占할려고 『카라한』氏를 北京에 派遣하야 關稅會議에 對하야 一種 [illegible] 中國時局에 對한 會議分擔[illegible] 露西亞는 極東政策[illegible] 露國의 [illegible] 看板을 가지고 『카라한』氏는 [illegible] 現하라 는 것이 라 今次의 [illegible] 「카라한」氏의 行動은 大히 注目할바이더라(奉天二十日發)

新規事業費

野不川存置林處分의 件其他를 決定한 後 一時散會하엿더라(東京三十日發)

三十日의 豫算會議에서 新規事業으로 計上될것은 左와如하더라(東京電)

一、災務教育費國庫負擔增額 二千萬圓

二、陪審法實施準備費 四百五十萬圓

三、建康保險法實施費 五百萬圓

四、銀行檢査官增員費 十六萬五千圓

五、輸出貿易獎勵費 三百五十萬圓

六、貨幣交換準備金 一千三百萬圓

七、航路補助費 五百萬圓

新規事業承認

六千數百萬圓

◇河田局長報告

日本大藏省은 三十日午後三時藏相官邸에 濱相次官以下參集 河田主計局長으로부터 主計局查定의 明年度歲入歲出豫算並明年度財政計劃의 整理에 對하야 報告에 依하면 [illegible]

聖彼得堡에서 軍事結社發覺

海道港灣을 破壞할 計劃

聖彼得堡에서 一大軍事秘密結社가 發見되엿다 該結社는 勞農政府鐵道港灣을 軍事的으로 破壞할 計劃이엇더라(나우엔二十日發)

莫斯科에 中國大學

故孫氏의 名을附하야

十一月開學

莫斯科特報에 依하면 莫斯科에 故孫逸仙氏의 名을 附한 中國大學이 設立되엿다 『라덱』氏는 新大學의 校長 ... 이 더라(나우엔三十日發)

全國的大動亂

(下)◇…三氏의 談

上海에서 趙德津

[illegible]

鐵道運送法案

三地同時施行

[illegible]

〔中國關稅會議續報〕

片務協定改訂

◇…中國全權이 要求決定

中國全權은 關稅自主方法에 關하야 中國案을 議에 附하기 前에 自主權의 承認 並 片務協定條約改訂의 同意를 要求하는 形式으로 하게 되엿더라(北京二十日發)

國定稅率과 釐金廢止의 討議할順序

本日의 第一委員會에서 二個問題가 討議되엿스나 日本은 中國主張을 支持하야 何者를 先討議할가는 列國政策에 [illegible] 가장 注目에 値하고 中國側은 [illegible] 國定稅率을 先決問題라하고 그에 依하야 自主權回收에 直進하라하나 列國의 大部分은 [illegible]

增徵金의 用途

借款國의 決議

中國特別關稅會議에서 決定될 원칙으로 此를 中國의 行政費로 充當할것이나 [illegible] 外債整理에 充當할 것이[illegible]

國定關稅率討議

中國의 三年說과 英國의 五年說

二十日의 分科會

三十日의 第一分科會에서는 中國側으로부터 國定關稅稅率을 [illegible]

自主權委員會

自主權委員會 第一回는 午前十時부터 開催 日英米三全權 出席 中國側은 王正廷氏外一名出席 [illegible]

段執政의 記者買收計劃

等級과 分配削定

醜態百出

關稅會議中 時局險惡의 報가 [illegible] 外國에 政府는 列國의 [illegible]

特殊會社에 憲政會의 爪牙

漸次露骨化

[illegible]

日本下旬 貿易出超

二千百萬餘圓

日本下旬貿易은 輸出七千四百十四萬五千圓、輸入五千二百十二萬一千圓으로 差引出超 二千百十萬四千圓이며 一月以後 累計는 輸出十八億八千二百萬七千圓、輸入二十一億九千五百十六萬九千圓으로 輸入超過는 結局 三億一千二百十六萬二千圓으로 되엿더라

左? 右?

◇研究會의 不統一

[illegible]

總督의 面會時間

政務總監의 不在中 事務의 繁劇 한 音을 아 朝鮮總督은 左와 如히 面會 時間을 特定하엿더라

月、水、木三日 自午後一時半至同四時 官邸

火、金兩日 自午後二時半至同四時 總督府

橫說竪說

◇段執政은 來年一月十五日、國民會議를 召集할것을 發表하엿다고、그 前에 奄行할이나 안할는지!

◇關稅會議에서 英國代表는 中國의 提案한 片務協定 限案에 對하야 反對하리라고、已往이면 阿片 獎勵策을 提出하지!

◇白系露人은 奉軍에 加擔하야 屈傷兵노릇한다고、그들도 『빵』때문에는、엇지할 수업는 貌樣、그리고도、依然唯心論을 提唱할런가?

北滿高麗農民會創立

대신청년주최로해림에서 중동선조선작인들로조직

북만녕고탑대신청년회주최(北滿古塔大新靑年會主催)로 ... 고령농민협의회 ... 이미 보도하엿거니와 지난달 ... 중동선 ... 조선인 ... 농민회(北滿高麗農民會)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

◇綱領
一、북만의농민아! 튼튼한조직아래단결을완성하자!
二、省略

◇決議事項
一、本會의立場鮮明키하기爲하야聲明書를發表할일
一、以下略

◇新任委員
一、庶務部 金澤、李如泉、金光洙
一、經濟部 朴春頣、魯炳春、宋世哲、李利昊 ...
一、調査部 安光泉、李利昊
一、宣傳部 宋彦柳 ...

一月會의擴充

小樽에部員派遣

일본동경에잇는 조선로동자 ... 소준(小樽) ... 로동자 ... 파견 ...

廿七年前亡父로부터 突然一張電報

가족들은모르고잇는중이다 여러분은생사인지

평안남도 ... 평원군(平原郡) ... 정주 ... 리화준(李化俊) ... 쇼식이 ...

大同郡에雀害

이삼할이나감수

평남대동군(平南大同郡) 룡연리(龍淵里)에는 참새무리가 ... 곡식에 ... 피해가 불소하다는데 ... (평양)

檢事가不起訴

본보금천지국당

본보금천지국기자 ... 피소사건 ...

안해代身毆打

안해차즈러갓다가 순사에게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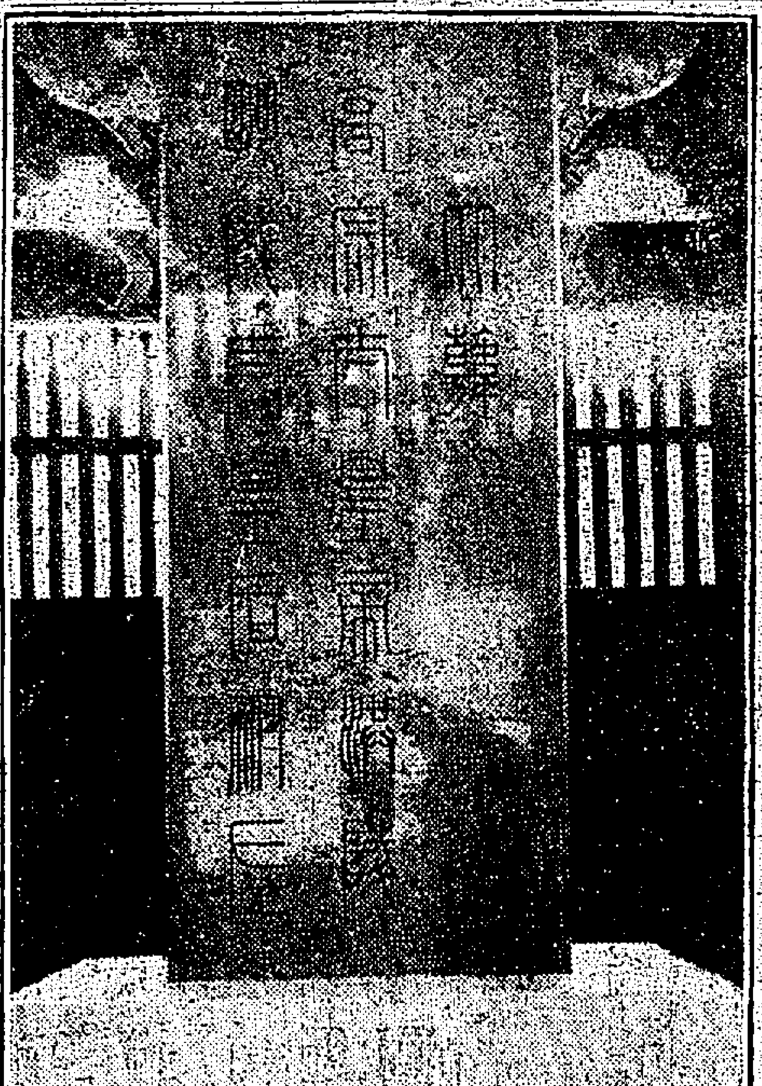
谷城丁富豪門中 嫡庶問題로相爭

서자가적자로되엇다고 법뎡에서형뎨간의싸홈 結局全門中이兩派分離

전남곡성군곡성면읍내(全南谷城郡谷城面邑內) 뎡가(丁家) 문중에서는 적서(嫡庶)문데로 ... 뎡래길(丁來吉) ... 뎡래성(丁來聖) ... 뎡래규(丁來圭) ... 광주디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 소송 ...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 ... 경성고등법원(京城高等法院)에 상고(上告)중이라고한다

兩派의葛藤

... 뎡씨문중 ... (금년) ... 법뎡(法廷) ... 련명진정서(連名陳情書) ...



三代祖遺產으로 從兄弟間에爭訟

사십년전에분배된유산을 혼자차지한다고소송데기

함흥하서리(咸興河西里)에 사는 김면희(金冕熙) ... 신흥 ... 김명희(金明熙) ... 유산분할(遺産分割) ... 소유권이뎐등긔 ... (함흥)

世界一의珊瑚島

南北七十哩、東西三十哩 카로린군도에서발견

... 카로린군도(캐로린群島)에 ... 산호도(珊瑚島) ... (오련보)

燈臺新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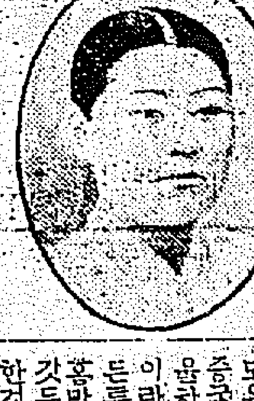
데신국에서는전라남도 ... 경리도(京雄島) ... 자동으로불이켜지는 ... 간수등대(無看守燈臺) ... 칠발도(七發島) ... 우이도(牛耳水道口) ... 준공하야 즉시 뎜화하리라더라

보고십흔사진 第八回發表

高宗太皇帝御碑

고종태황데께서게신 금곡어릉에 ... 어비는엇지되엇는지요 (先靑課閱者忠信洞李厚植)

◇記者 승하하신이후에도 시호(諡號)관계로 ... 이어비를보시는것이더욱 ... 보시고십흔것과 알고십흔것을뎍해보십시요



讀者와記者

己未春에變裝出境 昔日은花柳名星

◇六年間消息업는玄桂玉來歷

화조월석의번화한화류게를떠나 상해로가기까지의말마한로맨스

일시경성화류계에일홈이놉든 현계옥(玄桂玉)은 남달은뜻으로 상해(上海)에 갓다더니 그뒤에 엇더케나되엿는지요 (先靑課閱者京城金英植)

◇ 花柳場一蹴하니 爲先警察이失色

... 中國人으로變裝 ...

名妓에探花蜂蝶 風流郞中一靑年

自己딸의愛人을 作黨하야打殺

첨으로다니러가신다고 싸러가며죽이고도망 警察은犯人嚴探中

고양군연희면 ... (高陽郡延禧面) ...

愛人은東輪西翼 十九歲에漢陽春

◇朝鮮美人寶鑑

學生식혀採土타가 山崩으로五名壓傷

려주군공보교생도의참화 그중에네명은생명이위독

경기도려주군 읍내공립보통학교(驪州郡邑內公立普通學校)에서는 ... (려주)

今日부터汽車時間改定

◇모임◇

◇秋期講演 시내수창동조선 ... 수양회(修養會)의주최로 ...

◇日曜講話 조선중앙긔독교청년회의주최로 그회관에서 ...
一、米國賦의一端 ...
一、歐洲現下의政情 ...
一、中國動亂과列國의利害 ...
演題 悲慘의神 十一月一日
演士 鄭在億

進行列車發火

손해는업스나삼십분간연착

지난달이십칠일오전여덜시오분 ... 발화(發火) ... 경의선(京義線) ... (운던)

朝鮮劇場 (電話光 一〇五)

◎特別大興行 ◎
(壹)妖魔의歌 全七卷
(貳)鬪爭의熱血 全八卷
(參)이즐수업는妻 全七卷
(四)紫雲의彼方 全七卷
(五)호박가치말은處女 全二卷

乳母

年三十歲以下乳母를求함 ...

普成社物産 主趙在浩

新義州平北商會 四平街出張所

永同郡廳 公告

優美館

猛進하지 三十四卷

從二品嘉善大夫前承政院同副承旨 南陽洪公忠鉉氏以宿患十月二十九日(陰九月十二日)下午十時京城府水洞一五四番地自宅別世玆以訃告

發靷 十一月六日(陰九月二十一日)午前八時自宅

永訣式 同日午前九時三十分獨立門前

安葬 同日午後二時高陽郡元堂面星沙里

無情

光武臺

東京 ヤマニノ

各道郡御指定品

地方特約店募集

京城鐵工所

資本金六百萬圓 (明治三十八年設立)

當銀行은預金、貸金、爲替等一般銀行業務를確實親切히取扱함

株式會社 漢城銀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電話光化門長七〇六番

染料原料專賣

東華洋行

京城花園町九七

株式會社 以文堂

京城府寬勳洞一三〇 振替京城一〇二七〇 電話光化門二四八四

신교육을바든부인의 삼대위험시긔 (二)

허영숙

어머니로서의위긔

◇신교육 을받은녀자들은 조선말의지식이부족하며 조선글의지식이심히부족하다 학교공부를독〃히한사람이라야일본문편지나쓸줄알고그런치못하면일본문으로도똑〃히편지한장을쓸줄모르고조선문으로쓸줄모르는반등건등이가되고마는것이다요사이일본이나단녀온이들의담화가운데는일본말이절반이나석기며일본말로는글씨서 조선문으로번역이나햇스면햇지 처음부터 조선글로는 쓰지를아니한다고들한다 그도 그럴것이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조선말을 배호는시간 조선글을배호는시간이 모다합해야 여벗시간이되지를아니하니 아모리 제나라말이오 제나라 글이라기로 그러케쉽게 배홀수는 업는것이아닌가 보라일본사람은 일본말이 제나라국어이것마는 소학교에서부터 고등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십년동안에 한주일에평균 여섯시간이상을 배화가지고잇지아니한가 우리 조선자녀들을 우리의손으로 교육을식혀 다른 나라사람이하는 모양으로 조선국어와글을 십년동안을 가르친다하면 누구나 다조선말과글의지식이 풍부할것은 다시말할필요도업는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글과 우리의말을배홀길이 업다고하여도 가하리만치 불행한처디에잇다

우리는 조선사람이오 조선의어머니다 ᄯᅥ러지랴는말을 이어주출책임이 우리에게잇고 ᄯᅥ러지랴는글을 이어줄책임이 우리에게잇다 우리가어린아희를 무릅에안고『자장자장우리자장 우리아기잘도잔다』하는 말슴함으로 어린아희에게

◇조선의 혼을 너허주는것이아닌가 이러한중한 책임을엇개에 메인우리가 외국말하기가 조선말하기보다쉽고 외국글쓰기가 조선글쓰기보다 쉽다고하면 그손에서길너나는 아희는장차무엇이되겟는가 이것이 어머니로서의 위긔의하나이오 둘재는 어느나라를론하고 그국민에게 민족뎍정신을 길너너허주는것은 그나라의력사와 대대로나려오는풍속이다 그런데 우리의들은 그것을배홀길이 업슴으로 거긔대한지식이업서 우리의자녀들에게 민족뎍정신을 너허주지못한다 남의나라에서는 자긔나라

◇력사를 적어도 삼사년혹은 사오년식 가르친다 그러케오래배호는 동안에 제국민의장덤과 결덤을스사로 깨닷고제나라를위하며 봉사하겟다는요구가스사로 생기는 것이다제나라력사와 제나라 풍속과정신을모르고 조흔 국민이될수업는것은 정한리치일것이다

創作 眞珠는 주엇스나 (十六)

廉想涉 作

二十一

『글세그러케 무르시면안되어요 강제로하랍을 밧자는것은아니니까 예스든지『노―』든지 두가지중에대답만하세요』

『글세요―』 문자의신경은 점〃긴장하야 것다 평소에생각하든바와는 딴판으로 무섭게손아귀힘이 세인수작을 하는것이 나희보아서는맹랑하기도하고한청귀엽기도하나 무서운증과 호긔심과귀여운뒤석긴감정은 극도로날카라워저서숨이 막힐디경이다

『그럼 못드르시것단말슴입니까?』하고남자는연놀으는수작으로 눈을똑바로쎗다 문자는별생각이 다―떠올러와서 롤레박힐듯이머리ㅅ속에매암돌다 ――출놀고공연히혼자열길 대이고 시(詩)를지엇느니 엇잿느니하며 허든수작을 하며니청말 실성을하라고 이러나? 효뎡언니나 어서와주엇스면…… 하고 먼〃하니 안돌이 어누님이 나오면아니될터이나 어서가부간대답을하라고 성화를 바친다 나종에는경솔히 소청을듯겟다고 얼는승락을한것이 잘못되엿다고 후회와지하엿다 그러나한번하마고 대답한일이요 ᄯᅩ무슨소리가나오랴는지궁금하기도한지라 문자는두번째 승락을하고 말엇다

마즈막승락와지바든효범이는 싱긋웃고나서

『그럼 이야기하지요』하며 목소리를한청나추더니

『키―』하고또한참눈만험척하며무슨생각을하다가

『키―레일요――』하고세번째말을끈는다 문자는『레일요』라는말에 마음이털석노히고 극도로긴장하엿든신경과감정이일시에느려진듯이 소리업는 한숨을 후―쉬이고나서

『비밀슴하세요』하고남자를치어다본다

효범이는부탁할것을간단히말한뒤에

『그러니까요 ㅅ대은 인숙씨가 네시전후해서 어대잇는것을 좀 알자는말이얘요 혹은내가 인숙씨와무슨……요새ㅅ문자로련애관계나 잇서서그런줄 아실지 도몰으지만 결코 이것은사회와인도를 위하야서 우리가 헌신덕으로 노력하는것거를 이나와 그쯤만아시고 도아 주시겟지요?』하고말을매젓다

『어려지는아는일입니다 만은 ……』하며문자는 얼굴을 살펴보는 뒤를니을힘이 업섯다『남자란알힘으로 버티는것』이라는남자관(男子觀)이ㅁ과삼년간련애생활을하여 오는동안에 골수에배이도록 삭여온문자다 지금이당장에서는 인숙이와련애관계가 아니니 엇지니하지만 배ㅅ구멍에류리를 부치지안은 다음에야누가알랴? 고의심하는것도당연한일이다

『그러면못하시겟다는 말슴예요?』

효범이는점〃더뎜비며잡아채치는수작을한다

『글세 못한다는게 아니라 ――』하고문자는남자의 코를간지리는수작으로 도아름아름한다

『밤낫해야 돌으라미라몰이야님니까? 대관절문자씨가내인격을미드십니까? 못미드시겟슴니까?』하며효범이는 곱비를밧작닥아쥐엇다

『그건넘어심한말슴이 아니에요』

문자는넘어긴장하야 슨뒤라히스테리컬하게 목이메어간다

『그럼웨그러세요 정―그래도못하시겟다면 고만두시지요』하고효범이는 쥐엇든곱비를 탁노흐며 마음엇듯구어주는 수작을 하얏다

고개를한참숙이고잇든문자는 별안간아까가틀긴장한얼굴을처들며

『하지요! 무엇이든지 하지요』

효범씨의소청――효범씨가하라시는 일인다음에야 하다뿐이겟습니까 설사내가두분 사이에서리요이되고 나중에망신을한다손치드라도 결국은 효범씨의 문이아님니까? 물론 지금말슴하신데대하야 효범씨의 인격을 생각하드라도 손톱만큼 이라도 의심은아니합니다만은……』하고두눈에서 흘러나릴듯한 눈물을 고개를숙이며 남자의눈에 띄일새업시 모시적삼소매에서 꺼내인손수건으로살짝씻엇다 효범이는 문자의얼굴을 뚜려지게 드려다보다가 올은손을확내미럿다 두남녀는 효뎡이가나올ᄯᅢᄭᅡ지힘엇쥐고안젓섯다

학교일긔 (二五)

소년척후 (2)

이십칠일(토요)

『이애이애네눈밝니』

『눈요? 오리밧게스것은새색기ᄭᅡ지봅니다』

『이나무웃헤ᄭᅡ지올나가겟니?』

『나무웃헤? 내가? 그ᄭᅡ지건삼십초도안걸닙니다』

『그래그러면너올나가거기서저―편에뎍병이잇는가 연기나총칼이번득이는가 말탄것이잇는가좀봐다구』

『하지요』

『얼마닯나니?』

『돈을얼마닯나냐는말슴이여요? 일업서요 유쾌합니다 뎍병갓흐면아무래도 해야할것이니ᄭᅡ나라를위해서 하는것인데나도롬빠르듸 사람이여요』소년은이럿케우스면서 대답하엿습니다

『그래올나가거라』

『잠간만기다리세요 구두를좀벗고』

소년은구두를벗고 띄를졸나매고모자를벗어쥐흘밧헤 던져바리고 그나무둥치를그러안엇습니다『닷칠나!』하고 사관은소래를치며 그소년을말기려고하는데 소년은그어엽게생긴푸른눈을들녀『무엇이냐』고뭇는듯이바라보앗습니다

『아니관찬타올나가거라』

소년은 고양이와가치 졸졸올나갓습니다

『압흘주의해라』사관은 병뎡들에게소래를첫습니다 소년은잠간동안에나무웃총으로올나갓습니다 그가지를잡고이리저리둘너보이지아니하엿스나 몸은보이지아니하엿슴니다 몸은보석금색으로빗나고잇섯습니다 소년의가느다란몸이아조적게 보엿습니다

『똑바로압흘바라봐라』라고사관은소래를쳣습니다 소년은외인손을들어 이마를가리고 바라보앗습니다

『뵈니무어?』사관은 물엇습니다 소년은아래로향하여손으로 라팔을 입에대이고

『말탄사람 둘이 길게 섯습니다』

『거리는 얼마?』

『오리』

『움즉이니?』

『욱섯슴니다』

『또그밧게업니? 바른편을봐라』

소년은 다시바른편을바라보면서

『공동묘디 각가히 나무사이에 무엇인지 번득번득합니다 총칼이겟지요』

『사람은아니보이냐』

『아니보입니다 곡식밧헤숨어잇는것이지요』

이ᄯᅢ에 왱소리가나며 탄환이공중을 스처지나갓습니다 『내려오너라 적병한테 들켯다 그만두고내려와』하고 사관은 소래를첫습니다

『무섭잔하요』

『내려와』사관은 소래를 치고

『외인편에는 무엇보이잔니?』

『외인편?』

『웅외인편』

◇이사진은 누구나언뜻보면 저―녀자가 가운데도아주썩잘난녀자라고할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녀자가아니라 오늘날중국에서 극계에일홈이눕히열처난 매란방(梅蘭芳)인것을 말슴가잇습니다 매란방은 그가한번무대에올나서면 녯날의데왕이상의 열광뎍환영을 밧는답니다 (사진은매란방이 쳔녀로분장한것)

學窓散話 秋夕

【四十八】 外國에잇는實例에徵할진대 音樂과舞戱란것은대개宗敎로ᄯᅥ부터 派行의發達을遂하야왓스니 古初人의생각에神을悅케하는覺遍性의 物이樂舞인줄로認하엿기ᄯᅢ문 이다그럼으로 遼古의神事란것은그대로樂舞일뿐이엇스니 『가위』가이미部族的 一大盛典이오國民的 最高慶節일진대 필시音樂의精華와戱曲의 全班이齊陳畢作되어 國民樂의全的演奏의機會가되기를『오림픽』祭에서와 가탓슬지니 이는『가위』의實을 日字만약간불려서 擧行함으로 볼주한 高麗八關會의 行事에서徵驗할일이다 三國史記의樂志에보이는 崔孤雲의 鄕樂雜詠五首와 高麗史의樂志에傳하는東京『長漢城等曲이다 개는시방의日本의『神遊』(カミアソビ)『神樂』(カグラ)란것처럼다神前에서設行하든 樂舞의碎餘일것이오 ᄯᅩ三國遺事의處處에보이는 鄕歌幾篇도ᄯᅩ한그所謂『兜率歌』『詞腦』의殘贅으로시방日本에잇는 祝詞(ノリト)乃至謠曲(ウタヒ)와 意가相通하는것일것이다 三國遺事에吏文으로보이고 高麗史에一部譯文이보이고樂學軌範·國朝詞章에原形이碎傳하는 處容歌가튼것도 그起頭의『東京 달밝은밤』이란것부터 특별히『가위』樂의一部이든것을 아직도ᄭᅢ차고잇게보려면볼수잇슬듯하다 이러케樂舞의方面으로부터『가위』를尋討하야보면 料不及한眞義가그리로서 왜만히나올것을특히期待할수잇슬것갓다 그러나사방은거를하지못하겟다

【四十九】 마조막八月十五日節의名義에一瞥을 주어보자 支那에서가장널리씨우든 일홈은中秋又八月十五日이라 함이오日本에서는 덤허노코『十五夜』라고만하야도 中秋의그것을意味하는것이되엇스니 이는다國語의 『八月보름』이란 稱謂에合하는것으로 說明與否가 업슬것이다。 提要錄에는『八月十五日爲月夕』이라하니 月本位月中心인 慶節의名稱 으로편숭문하고 숫한가지은것이라하겟스며日本語에『ツキミ』가그대로『十五夜』하고 ᄯᅩ이相通함은 이意趣를한층더 强하게表現하는것이다。 國語에는『가위』以外에는 아니最近에와서는 秋夕이이날에 對하야가장普遍한 稱號가되엇스니 이말의出處를 中秋月夕의 合約한것으로 생각하야 버리면손쉽게끗치나기는 하지마는그正否가과연어떠할는지。 禮記에『天子, 春朝日, 秋夕月, 朝日以朝, 夕月以夕』이라하야 古禮에天子가秋分日에 月을西門外에祭하는것을 秋夕이라하엿스니 國語의秋夕이란말이 본대拜月의古禮를 이漢典의熟語로서 稱謂하게비롯한것 아닐가? 우리는秋夕이라는國語獨特의節稱은 그러케얼는짐작만으로 집어칠것이아닐줄안다。(佩文韻府의秋夕條下에는 七啓의九秋之夕爲權末央, 陶潛詩의造句新秋夕亭亭月特圓, 又九月九日詩의 靡靡秋已夕凄凄風露交를注하엿슬뿐이다)。 더욱國語의『가위』는 八月十五日이特殊한國俗인만큼 그名稱이卓越함을보겟스니 잔사설할것업시報賽란一語로써 이날에當해노흠이과연용하게 그實의實이라할適名임을 생각할수록깁히늣기겟다。모든正大한 價値設定이 이『가위』날로써 比較節制되는 關係로무릇 價値를表하는 종히『갑』이라고 하엿는지도 모를것이다。갑이―가위― 어떠케조출하고도 함함한일홈이냐―를는길에적거니와 이날은 특히月이 임자인節日인 ᄭᅢ문에달대접을 유난히소중하게하야서 常名밧게도 멋낫徽號를奉上등하엿스니 支那에서는中秋月을端正月 이라고불럿서歸愈詩에도『三秋端正月』, 『今夜出東溟』이란것이 잇스며日本에는 三五夜月, 芋名月等의名이잇다。

【五十】 우리는以上에서 (一)中秋는太陰中心의名節로그享祀에는生殖贊美, 豐稔感謝의意가包含되엇슴, (二)더욱朝鮮의그것에는 언제부터지 種種特殊의意味가附加되어서 部族的國民的社會的의最高最大의典禮를일운點에서 거의朝鮮獨特의名節가치되엿슴 (三)그러나그밋흘캐어보면 朝鮮特殊의이祀典도 실상日月崇拜로核心을지은 不咸文化系統의共通信仰을 그主潮의方面에서延擴發散함에버서나는것아님 等을약간짐작하얏슴으로써아직滿足하야두겟다(끗)

雜論 朝鮮文化史上으로본 佛教의影響 (十五)

五、現代의文化와佛教

金相哲

維新을하려거든루―터式的으로徹頭徹尾하게할것이오寶激을하려거든朝鮮의佛教徒를一人도남김업시다죽여天코究竟徹底히할것이오世間과關係를끈코衆生을濟渡하라는釋迦의根本意識를背逆하고山間에隱居하야去世的念佛을하려거든衣食도全廢하고極樂世界가目前에現出하도록해보와야할것이다善을해도至善을해야萬人으로하야금向善의益이有할것이오惡을해도大惡을해야萬人으로하야금悔改의利가有한것이오무엇이나半半로막지솔하고半身노릇을하면大丈夫의하는일이못되고도리혀人의反感을사기쉬운것이다

그러나어느社會어느宗教에나다欺詐할수업는病弊點이隱伏하야잇는것은事實이다耶蘇教로말하야도新興하는宗教이지만은그의內面을보면亦是쌕아넘病弊가만타하거든하물며數百年間을逆酷한節制下에沉潛되엿든佛教가이제야겨우再生의期를得하야新活動을開始하는中이니完全한組織과優雅한制度가되기前에는應當如斯한弊端이잇슬것은事實일것이다하지만은自今以後로는더욱覺悟하야社會를爲해運動하고民衆을爲해公益的事業을하여야할것이다學校도建設하고病院도設置하고教會堂도新築하야一般社會人으로하야금아모그리운일이업도록해야할것이오久廢되엿든藝術도佛教徒諸位의手腕으로復興식키며曇徵和尙, 率居和尙, 于勒和尙, 李寧和尙等의天才藝術의創作家도諸位의中에서出現하도록하며法隆寺壁畵, 皇龍寺壁畵, 萬佛山, 石窟庵, 圓覺塔, 飛行機, 潛航艇, 汽車, 汽船等의新藝術品도諸位의手腕으로創造해내야될줄을一般民衆은懇切히期待하고信望하는배이다이리하야社會와交涉을맷고新文化를建設하며民衆과關係를걸고新生活을爲하야朝鮮社會로하야금文明社會가되게하고朝鮮民族으로하야금文明民族이되게하면이밧게더幸福될것이 무엇이 ᄯᅩ잇스리오

五月二十六日東京本鄕에서

小學生徒의衛生教育 (三)

주요섭

八、肺病

2、예방방법

폐병을근본뎍으로 예방하는데는 學校가別로큰힘을가지지못햇다 特히肺病뎐염에근원디가되는가뎡과 또는사회와協助하지안코는不可能하다

예방의가장뎍당한 방법은곳兒童으로 絕對로폐병환자와의 접촉을 방어하는것에잇다 이접촉을방어하기위하야는 물론부모가환자인경우에는 그가뎡에서쓸어내오지안으면안이될것이오 할수만잇스면 府나社會와協助하여 無料病院과無料郊外治療所를 세우도록努力하는동시에 學生들及그學父兄들에게 兒童이해빗, 空氣, 유희등을얼마나要하는지를 아르켜주어야할것이다

特히學校에서는年始마다身體檢査를할때분주하다고되는대로 얼는얼는넘기지말고 專門醫師에게 充分히진단을식혀여그最初期에잇서서 病을發見하도록努力하며 이미肺病質로認定이된兒童들로는 特別班을組織하여 工夫보다도 充分한休息과睡眠, 단첩업는注意와. 진단을게을니하지말아야한다

그리고그아희들이 小學을맛초고 나가는경우에는 特히더細密한진단을해보고 就業에관해서訓導하지안으면안된다 곳肺病質인아희에게는 都會處에서 무슨일을엇는것보다 農村으로가는것이 有益한것을잘타일너서 都會를단념하고村으로가도록힘써야하겟다

小學校에서肺病예방을위하야行할수잇는바 몃가지를간단하게 추려쓰자면 대강아래와갓다

1、兒童에게適當한 위생教育을베풀것 위생교육은不可不幼稚園으로부터 大學에니르기ᄭᅡ지 어느程度어느級에나하나도ᄲᅢ지말고 늘가라쳐야할과목일다 위생교육이야말로다른무슨科目보다 第一貴重하고時急한科目이며 ᄯᅩ가장가라치기재미잇고調化되는科目일다 小學初級에잇서서는몸을정결히가지도록할리유며몸정결히하는習관을기르는일에注重할것이오 좀高級으로 올나가서는이것저것特殊한問題를뽑아서 細細히가르치는것이 有益하니니를테면 『新鮮한空氣의價值』『肺病과酒類와의관게』『過勞, 營養不足等이身體發育에 밋치는영향』『肺病그他非衛生的 習慣이社會及個人經濟問題에 及하는영향』『個人위생과 公衆위생의관게』等여러가지재미잇는 문데로兒童들을 깨우치지안으면안이될것이다

二、小學校教師된者 맛당히衛生에關한智識을넓히지안으면안이될것이다 特히는새로校醫와聯絡되어 새로운지식을엇거나 그러치안으면新聞雜誌에衛生에關한서적과잡지신문기사等을읽어야할것이다(小學先生에게는큰指導가될英文指導書로 이論文을結終時에作者와書冊일홈을數十個를列擧해서一般의참고에供하려한다) 그리고特히定期休學을利用하거나 그他비슷한利用하여一週或은二週間衛生教育강습회갓흔것을해마다열必要가잇고先生된者는 勿論義務的으로此種의講習會에參席할것이나萬一不願하는사람이잇스면校長이강제로라도參席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몬저先生이充分한智識이업스면勿論學生을잘가르칠수도업고잘觀察할수도업슬것은明瞭하다

三、現在使用되는科程表을根本的으로改良하여야하겟다 나는平壤서四十五分으로(何種의科目임을不問하고)一科目時間으로定한小學校를보앗다 참으로教育學을조금이라도배와거나研究햇다는사람이그말을들으면기절을할것이다 四十五分一時間은中學校에나適當하다 小學에잇서서는아모리쉬운科目이라도三十分을넘지말것이고特히算術갓흔것은極上으로十五分乃至二十分을一科目時로하지안으면아니된다 그리고지금더옥이우리나라사람용되는漢文時間習字時間等을주리지안으면아니되겟다 이러케하여每日三十分或은一時間의시간을다못위생교육만의해쓸수가잇다면 그것처럼반가운일은업슬것이다 勿論여기서위생교육이란말은다만희미한추상뎍위생규측만을학생들에게장황이들녀주는것을 意味하는것은絕對로아니다. 위생교육이라고하면장확한설명보다도아주實際的實習을主眼하여야한다 곳목욕하고안이한것검사손수건가지고단니나안이하나검사 학교에서의과잔을두어두고아츰마다先生의지도하에서닥니는련습과습관을양성하는것도훌니지안는것손과귀및과목에써잇고업는것등을조사하고련습식히는일을每日한시간만가젓스면넉넉히할수잇슬것이다 突然히쓸데업는技術漢文習字等으로兒童의貴한時間을浪費하지말고이시간저시간에서四五分式이라도절약하야每日一時間식만의위생교육시간을엇는다면그것이그地方또는朝鮮全民族의將來를위하여얼마나高貴하고김진일이될던지알수업다 만일학교에서얼는實行을안이한다면내子息으로그학교에보낸父兄된사람들이그것을要求할權利와義務가充分하잇다

古時調

못노라 汨羅水야 屈原이 어이죽다더니
讒訴에 더러힌몸 죽어뭇칠 ᄯᅡ이업서
滄波에 몸을던저 魚腹에葬

◇ ◇

이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하니
蓬萊山 第一峯에 落落長松 되엿다가
白雪이 滿乾坤할제 獨也靑靑

▲二千五百圓割增金附
▲賣出期間＝十月二十二日부터十一月十日ᄭᆞ지
▲初回抽籤來一月

復興貯蓄債券(五圓券)賣出

▲賣捌店＝當行本支店, 鮮內各銀行本支店, 金融組合

朝鮮殖産銀行 (日本勸業銀行代理店)

祝東亞日報英陽支局發展

英陽面西部洞 日月館主 金且伊 金正連
英陽面西部洞 高陽館主 上高家房之助
英陽公立普通學校 校長 小池木一郞
英陽公立普校訓導 吳光煥
英陽公立普校訓導 權五珠
英陽公立普通學校訓導 李逢洛
英陽公立普通學校訓導 盧德關
英陽公立普通學校訓導 尹南伊
英陽公立普通學校訓導 趙順燮
英陽邑英山期業館 金基亨
英陽邑 雜貨商 山岡廣吉
英陽面西部洞 南廷卓
英陽邑寫眞館主任 宮田竹次郞
青松郡巴川面德川里 沈相光
青松郡巴川面德川洞 沈濬澤
青松郡青松面青雲洞 黃士彬
青松郡青松面青雲洞 黃鶴岺
石保面院里洞 李鉉敏
石保公立普通學校 校長 遠田正剛
青杞面事務所 面長 具然夏
青杞面唐洞 朱範烈
英陽面甘川洞 吳鉉龜

石保公立普通學校 訓導 金石根
立岩面蓮塘洞 鄭瀚模
立岩面新酒洞 權炳遴
立岩面屛玉洞 申致九
立岩面屛玉洞 李文浩
立岩面屛玉洞 尹顯五
立岩面蓮塘洞 鄭輝應
立岩面山海市場 雜貨商 李鍾燁
立岩面屛玉洞 李恩浩
日月面釗村洞 南成欽
日月面明倫學堂 朱宇鎭
日月面事務所 面長 趙文錫
日月面明倫學堂 趙佑泳
日月面道溪洞 趙昊容
日月面注谷洞 趙鏞基
日月面道溪洞 南延欽
日月面注谷洞 趙尙基
日月面道溪洞 李圭承
青杞面幾浦洞 李範鎬
青杞面幾浦洞 朴勝八
青杞面亭洞 金東潔
青杞面上青洞 趙基元
青杞面青杞洞 李晩馨
青杞面青杞洞 吳世汶
青杞面唐洞 印版業 金先哲

青松郡巴川面德川洞 沈相元
青松郡縣校掌議 沈能鎭
青松郡青松面[illegible] 金[illegible]鎭
青松郡巴川面地境洞 趙圭漢
和睦公立普通學校 校長 飯塚秀一
安德面保德院 金永祿
青松郡安德面明堂洞 閔[illegible]
青松郡安德面安德洞 趙[illegible]
青松郡安德面明堂洞 閔[illegible]
青松公立普通學校 校長 小村太吉
英陽郡石保面[illegible]谷洞 朴延秀
石保面院里洞 李龍浩
石保面院里洞 李鉉覺
石保面院里洞 購買組合 李鉉杜
石保面地境洞 金[illegible]
石保市場 雜貨商 郭烈
石保面杏谷洞 朴[illegible]
石保面杏谷洞 朴炳昌
石保面花梅 明倫學堂 校長 金周冕 沈隣述
石保面院里洞 李秉夏
英陽郡石保面院里洞 代書人 林[illegible]
石保公立普通學校 訓導 申周澤
石保面院里洞 李瞮浩
石保公立普通學校 訓導 金[illegible]
石保面事務所 面長 金守一

眞寶公立普通學校 校長 俊塚秀[illegible]
青松郡[illegible] 面長 南貞植
[illegible]

◇地方論壇◇

돈은 쓸곳에 쓰라

—鳳山儒林에게—

沙里院支局 一記者

今春鳳郡鄕校財産으로 沙里院에 圖書館을 設置하라고 設計中에 잇든것은 誰某를 莫論하고 共知의 事實이다 그런데 所聞에 依한則 近日儒林一部에서 圖書館設立反對說을 傳한다하기에 玆에 筆者는 鈍筆을 不顧하야 反對者에게 一言을 寄코저 한다

◇

諸君의 主張하는 「義禮智」도 文盲者로서는 아지못하는 것이 아닌가 俗語에 「魚魯不辨」이란 말과 가치 文盲者로서야 「義禮智」를 알것는가! 그러면 孔夫子의 道를 相當히 奬勵하여야 할것이 아닌가 … 諸君은 一般에게 知識을 普及식히는 圖書館을 設立하라

◇

春秋獻祭와 大成殿의 修繕가 무삼 效果가 잇는가? 諸君이여 一步를 更進하야 實際問題에 着眼하라 … 時代에 適應치 못하는 것이다

二都市巡覽記(五)

—平壤視察團紀行—

大邱支局 崔韶庭

牧丹峰에 이르러다 永明寺를 지내 浮碧樓에 이르렀다 牧丹峯 絶壁아래 滔滔한 碧波가 岩腳을 씻는데 멀니 雲煙瀰漫한 平原의 中和의 諸邑을 눈압으로 보이고 綾羅島가 벗을 불러 가치 잇는듯 하다 …

浮碧樓高揭碧空 更浮樓影碧波中 時爲遊人增放形 綾羅島白半沈紅

敵廟窟, 朝天石… 勝景을 歷覽하다 … 大同江船遊의 체험이 … 邱支局의 主催다 三隻의 배는 一同을 平壤支局諸氏와 함께 실고 …

平壤視察團一行은 多日疲困한 몸을 避하려 햇스나 … 心身을 慰安할수 있는 名勝地에서 …

牧丹峯 옷손곳에 大同江 맑앗서라 綾羅江山 조흔景을 버어이 두고가라 泛泛中流 醉한손이 임그리워

綾羅의 빗난江山 네 果然 아름답다 大同江 배를띄워 醉하고 또醉할때 비노니 이 江山에 風流涉識한 가운데도 임과함께 …

大同江水碧連空 簫鼓聲鉛續續風 此日此遊須記取 弟兄南北一年中

그러나 우리는 詩境의 平壤에서 만 놀수 업는 것이다 … 平壤은 産業中心이다 오늘날 産業問題에 … 勤儉力作의 氣風과 果敢直行의 精神 … 이에 도리켜 平壤人士에게 感謝의 情을 表하는 同時에 … 여태 지나지 못하엿스나 … 朝鮮에서 平壤인들 …

우리네의 經濟界가 余的 大打擊을 밧는 이 때 … 商工業界가 年前보다 不振한 … 平壤의 精神的 文化의 程度는 어떠한가 … 保守的인 것이 가장 長處인 同時에 短處라 … (繼續)

宣言이 不穩타고 咸南靑聯禁止

부쳐노흔 看板을 떼어버리고 委員中한사람을 拘束하엿다

◇…咸興署의 高壓政策

咸南靑年聯盟創立總會準備委員等의 決議를 하엿다는데 同日外지 參加한 團體는 아래와 갓다고 (大邱)

大邱靑年同盟, 大邱衡平靑年會, 慶道靑年會, 慶山靑年會, 慶山衡平靑年會, 慈仁衡平靑年會, 星州靑年會, 高靈靑年會, 倭館靑年會, 醴泉門靑年會, 龍宮靑年會, 尙州少年俱樂部, 聞慶山一靑年會, 倭館衡平靑年會, 星州衡平靑年會, 河陽衡平靑年會, 新寧衡平靑年會, 倭館金剛俱樂部

咸南靑年聯盟創立總會는 去二十四日에 創立大會를 開催하라고 準備에 奔忙하든 中 大會前日 卽二十三日에 이르러 咸興警察署에서는 宣言이 不穩하다는 理由로 大會를 禁止한다는 命令을 나리엿스므로 不得已 大會는 開催치 못하엿다 …

社會運動으로 職業

—蔡氏拘束理由는 이것—

結局三日拘留

別項事件에 關聯되어 拘束을 當한 蔡奎恒氏는 結局三日間의 拘留處分을 바닷는데 이에 對하야 咸興署 田中高等係主任은 「蔡奎恒氏를 拘束한 것은 靑年聯盟事件에는 아모 關係도 업고 다만 一定한 職業이 업시 社會運動을 職業으로 하는 듯하기에 調査하기 爲하야 拘束하엿던 것이며 그의 行動이 治安을 妨害한 것으로 認定하야 三日間의 拘留에 處한다는 意味의 말을 하더라」

慶北靑年聯盟

大邱서 發起

大邱靑年同盟發議로 慶北道靑年聯盟을 組織코저 去月二十五日에 準備會를 開하고 今十一月十日發起總會를 南山町一〇四番地 … 그時代議員數는 一團三人式으로 한다는 …

順川에 記者團

廿七日創立

平南順川各新聞支分局記者들이 一次도 會合한 바가 업서 만흔 遺憾으로 生覺하여 오든바 去二十七日에 當地天道敎宗理院에서 記者團을 創立하엿는데 … 當日會合에 順川地方에 잇는 各新聞支分局記者 …

◇參加團

朝鮮, 時代, 本報 三支局 …

◇發捐氏名

順川郵便所長 順川警察署 … 邊氏各金一封 ▲順川公立普通學校文昌姬氏 記者徽章十五個

自由勞組로 改稱

潭陽勞農臨總決議

全南潭陽勞農會에서는 去二十八日午後六時에 潭陽靑年會館內에서 臨時總會를 開하고 左記와 如히 決議하엿다고 (潭陽)

◇決議事項

一、名稱變更의 件

純勞働者團體로 組織體를 變更하자는 委員會의 提議에 依하야 「潭陽自由勞働者組合」이라 改稱하기로 一致可決함

一、會員整理에 關한 件

各職業別組合에 參加한 會員은 自然失格으로 認하고 左記標準에 依하야 會員을 增募하기로 함

(一)勞働者로서 職業別組合에 …

◇綱領

一、我等은 階級的 團結力으로서 經濟的 利益을 爲하야 鬪爭함

一、我等은 無産階級의 連鎖的 關係를 自覺하고 一致團結을 期함

一、我等은 相互扶助를 生活信條로 하는 新秩序의 實現을 爲하야 最後까지 努力함

◇決議事項

一、職業別勞働組合促成에 關한 件

一、標準賃金制定에 關한 件

先驅者의 하소연(四)

谷泉抄譯

三

法律의 硏究를 마치고 辯護士되기를 뜻하는 諸君! 諸君의 前途에도 또한 우에 말한바와 가튼 難關이 업지 못할지니 勿論 諸君은 極히 純潔하고도 熱烈한 愛他主義者로서 처음으로 諸君이 法律의 硏究를 뜻하엿슬 때로부터 恒常 스사로 나는 모든 不正과 不義에 對하야 間斷과 容赦업시 싸호리라 그리하야 至上至高한 正義 그것의 表現인 法律의 勝利를 爲하야 勸惡懲罪할 것이니 이러한 美하고 善한 天職이 또 어데 잇스리라 하고 생각하엿스리라 그리하야 諸君이 諸君自身과 諸君의 理想을 가지면서 第一着으로 各新聞紙上에 「本人이 今般左記場所에 法律事務所의 看板을 걸어 ……」云云의 開業廣告를 내인 後 諸君은 …

××

한 地主가 잇서 契約에 約定한 小作料를 納付하지 안는 小作人의 家産을 差押하기 爲하야 그 事件의 法廷手續을 諸君에게 委任한다하자

法律上의 見地로 보아서는 조금도 躊躇할 餘地가 업슬지나 그 小作人은 當然히 納付하여야 할 小作料를 納付하지 안는지라 그의 家産을 差押하는 것은 避치 못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內面의 事實을 詳細히 알아보면 거긔에는 果然 悲慘한 理由가 潛在하엿슴을 알 것이니 그 小作人은 數十年來로 피와 땀을 흘녀가면서 해마다 지어노흔 農作物의 六割以上을 地主의 倉庫에 실어다 바치고 게다가 無理한 地稅의 納付와 肥料代金의 支出等에 남어지 收穫物의 大部分을 消費하여버린 後 自己의 家族들은 餘地업시 굶주리고 헐벗는 可憐한 生活을 하면서도 自己 …

××

다시 例를 다른 곳에서 어더보자

已往에 한 … 數日동안 한조각의 「빵」도 먹지 못한 七八人의 어린 家族을 둔 失業勞働者 한사람이 마을 …

潭陽勞聯創立

◇…都草爭議對策도 討議

全南潭陽에는 勞働運動이 자못 熾熱하야 各職業別組合이 組織되엿스나 다만 總機關이 업슴을 遺憾으로 생각하든바 去月二十八日下午八時부터 潭陽靑年會館內에서 潭陽手車組合, 牛馬車組合, 運搬組合, 精米勞働者組合, 自由勞働者組合等 五個團體의 聯合으로 潭陽勞働組合聯盟創立總會를 開하고 綱領과 規約을 通過하엿스며 任員을 選擧하고 其他重要事項을 決議한後 同十二時頃에 無事히 散會하엿다는데 綱領과 任員氏名及決議事項은 如左하다고 (潭陽)

◇綱領

一、… (生略)

◇決議事項

一、合宿所期成에 關한 件

執行委員會에 一任하야 그 實現에 努力케 함

一、消費組合設立에 關한 件

組合員의 經濟的 利益을 擁護키 爲하야 小規模의 消費組合의 實現에 努力하되 그 方法은 執行委員會에 一任함

一、社會問題

一、農民運動에 關한 件

一、衡平運動에 關한 件

一、女性運動에 關한 件

特殊問題

一、都草島小作爭議聲援에 關한 件

(一)惡地主文在喆에게 警告를 與하야 反省을 促할 것

(二)爭議의 進行如何에 依하야 調査員을 派遣하며 物質又는 精神으로 極力援助할 것

專門委員會를 特設하야 物價指數를 調査하며 數學的 統計表를 作成하야 標準賃金을 制定케 할 것

◇執行委員

李仁燮, 鄭琪煥, 奇老春, 金文圭, 金德普, 金容鎭, 李一鮮

參加치 아니한 者

(一)三十圓以下月給으로 生活을 支持하는 者

(二)勞働運動에 從事하는 者와 又는 失業者

◇增選委員

徐崇鉉 鄭琪煥 奇老春

沙里院驛業績

四月一日부터 九月末日外지 京義線沙里院驛業績은 아래와 갓다고 (沙里院)

▲乘車人員數 八萬八千九百八十九人 ▲降車人員數 九萬五千百六十一人 ▲入場券 七千二百八十二枚 ▲公衆電報取扱 一千四百七十三件 ▲同收入金額 五百六十八圓〇四錢 ▲客車收入 七七〇六二、一九 ▲入場券收入 二八四二、五五 ▲雜收入 三四四、九八

小作會創立

保寧熊山에서

保寧郡熊山小作人등은 去月二十七日에 熊川市場勞會館에서 創立總會를 開하고 任員選擧와 諸般事項을 討議하엿다는데 地主와 舍音이 小作人에 對한 在來의 惡弊를 徹底히 打破하도록 實行하기로 決議하엿다고 (保寧)

◇檢査委員

姜光先, 趙景鉉, 鄭璟仁

朝鮮正文講習

順天서 三日間開催

順天靑年會의 主催로 朝鮮正文講習會를 去月二十六日부터 三日間 每夜七時半부터 九時半까지 順天公立普通學校假教室內에서 開催하엿는데 聽講生은 地方男女靑年을 爲始하야 各學校敎員外지 每夜約二百名이 出席하엿스며 講師는 京城에서 온 朝鮮正文會長李弼秀氏라는바 一般聽講生은 만히 어든 바가 잇섯고 二十八日午後九時半에 講習을 맛치고 李弼秀氏는 二十九日에 順天을 出發하야 光陽, 麗水, 高興, 筏橋, 寶城等地로 向하엿다고 (順天)

載寧管內免稅

四千七百餘圓

面積六五五萬餘坪

黃海道載寧郡管內의 今年度水災로 因하야 免稅된 總面積은 六百五十七萬三千三百九十四坪에 稅額이 四千七百五十二圓八十錢에 達한다고 (載寧)

松高에「라디오」

開城私立松都高等普通學校에서는 今番在徒의 學術的 試驗用으로 「라디오」를 架設한바 去二十七日下午七時부터 受話試驗을 行하기 爲하야 一般 … (開城)

國調後의 人口

十月一日擧行한 國勢調査에 依한 各地人口의 統計는 如左하더라

‖仁川‖

普通世帶	一二、五一一
準世帶	二八五
男	三九、三九二
女	二五、六九二
計	五五、〇八三

인바 此를 昨年末戶口調査에 比하면 人口 一萬三千六百五十八人의 激增을 示하엿더라

‖金泉‖

區別	男	女	計
朝鮮人	五、一六	四、六金	一〇、〇三
日本人	一、〇三	九二	一、〇〇四
支那人	三	三	三
總計	六、〇四	五、六六	一一、六

‖咸興‖

戶數	二、九一一
人口 男	八、八三四
人口 女	八、六六七
計	一七、五〇八

此를 昨年末現在에 比하면 戶數로 三千一百二戶, 人口로 九千九百六十五人이 增加되엿더라

安岳公普增築

黃海道安岳公立普通學校는 敎室이 狹窄하여 困難으로 지내든바 今般五千圓豫算으로 二敎室을 增築하게 되엿다는데 … 同時에 李鳳九, 李蒔柱 … 에 對한 說明이 잇섯다고 (開城)

有志及學父兄은 該校理化學敎室에 多數捐助하고 試驗 …

池波里川改修

開城池波里川改修工事는 東亞土木企業株式會社에서 第四區工事를 一萬六千六百圓에 落札請負한바 去月二十八日午後三時에 郡入式을 擧行하엿고 起工은 今月一日부터 着手한다고 (開城)

東北地方

◇江陵邑病院移轉

江陵郡江陵邑은 三百戶에 達하는 市街일뿐 아니라 江陵의 一大中心地가 되어 江陵一般住民의 生活上 莫大한 影響이 잇고 保存하야 學校生徒가 數千에 達하는 今日에 病院이 無함을 當地民一同은 遺憾으로 생각하고 昨年度부터 注文里繁榮會에서 道로 交涉한 結果 道로부터 邑內에 잇는 道立病院을 注文里로 옴기게 되어 臨時로 注文里水産陳列場을 借用하여 去二十日에 開院式을 擧行하엿다는데 二十一日부터 當分間 江陵邑病院에서 醫師를 派遣하야 …

畿湖地方

◇同仁水組水稅配定

平北定州同仁水利組合에서는 今年에 調定한 水稅는 三十二萬餘圓이라는데 六等級으로 分하야 左와 如히 徵收할 터이라고 (定州)

等級	百坪當
一等	三、二三三
二等	二、八八三
三等	二、三三六六
四等	一、七一六六
五等	一、〇三三
六等	五八三

◇安城에 穀物檢査所

京畿道에서는 安城에 穀物檢査支所를 設置하고 十一月一日부터 事務를 開始하기로 決定하엿다는데 直接市場과 去來의 길이 열님으로 米取引上至大의 便益이 잇스리라고

◇龍江消防隊秋季點檢

市外龍江面에 잇는 各消防組秋季點檢은 지난二十九日午前九時부터 東大俱樂部運動場에서 擧行하엿다는데 龍山警察署長 信田氏의 消防手 機械의 點檢이 잇슨후 分列行列과 實地演習이 잇섯다하며 面內有志들은 一千七百餘圓을 들이어 消防手 一百五十餘名의 服裝을 지어입혓다고 (高陽)

◇高吉秀孃宣敎紀念

開城私立好壽敦女子高等普通學校長高吉秀孃이 朝鮮에 와서 宣敎한지 二十年임으로 이의 紀念祝賀式을 지난二十九日下午七時부터 當地忠橋禮拜堂에서 公淑氏의 司會下에 式을 開하니 來賓學生 外하야 出席者가 一千五百餘名이라 式順에 依하야 式辭와 祝辭와 紀念品進呈이 잇슨후 該校長의 答辭가 잇슨 後 同九時五十分에 閉會하엿다고 (開城)

◇朝鮮自動車定總

忠南公州朝鮮自動車運輸株式會社에서는 豫定과 갓치 지난달二十七日午後二時부터 當會社事務室內에서 第 …

關西地方

◇維新校臨時校長選擧

安州私立維新學校長金廷善氏가 不幸의 오사키를 當하야 去二十七日夜에 同校理事會를 召集하고 校長選擧를 行한 바 金廷善氏의 後任으로 同校敎員으로 잇는 崔志化氏를 臨時校長으로 就任케 하엿다고 (安州)

◇地方改良講演

江原道鐵原郡에서는 今番地方改良講演會를 開하기 爲하야 去二十七日下午七時부터 鐵原劇場에서 開催하엿는데 … 聽衆이 四百餘名에 達하엿다고 (鐵原)

嶺南地方

◇金泉靑年聯盟總會

金泉靑年聯盟에서는 去二十四日午後一時부터 金泉靑年會館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諸般事項을 討議한 後 慶北道靑年聯盟에 加入의 件을 承諾하고 來十一月二十一日 … (金泉)

◇棉花共販成績不良

慶北尙州郡에서 … 棉花共同販賣를 實施하엿는데 … 今年에는 … (尙州)

◇南城靑年常務委員會

慶南南海靑年會에서는 지난二十七日午後八時부터 同日報南海支局內에서 常務執行委員會를 開하고 … (南海)

◇成安酒造組合創立

慶南成安酒造組合을 … 去二十五日에 成安公立普通校內에서 … 酒造業者 … (成安)

八月定時總會를 開催하고 諸般事項을 決議한 後 任員을 如左히 選擧하엿다고 (公州)

◇任員

▲取締役 外山孫右衛門, 田中清二, 神宮茂八, 木田福寅 ▲監査役 高木友之助, 殺和平

湖南地方

◎潭陽勞靑總會

全南潭陽靑年會 … 에서는 … 委員의 決定, 地方委員李正根, 兪化植, 李相鳳, 鄭在玉

◇任員

▲執行委員長 兪龍根 ▲庶務部 兪鐵完, 李正圭, 兪邁 ▲敎育部 鄭二桓, 李元龍, 郭守賦 ▲調査部 姜光, 金景汝, 鄭璟淡, 李興鳳 ▲社會部 金鍾洪, 鄭璟敏, 李廳浩 ▲體育部 李尙俊, 宋三龍, 朴奎培 ▲少年部 鄭春澤, 白南柱 ▲檢查委員 李正根, 兪佑植, 李相鳳 地方委員(開市)李正郁(玉山) 鄭在玉

◇任員

▲組合長 裵碩祚 ▲副組合長 金自澄 ▲評議員 九名外十一人 ▲監査 …

◇高敞靑年執行委員會

高敞靑年會에서는 去月十四日午後七時에 同會館內에서 第四回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臨時議長 金鍾洪氏의 司會로 開會하야 各部事務分掌을 去番臨時總會에서 地方委員을 選任하기로 하엿스며 特히 會員의 連絡을 取하기 爲하야 各地方委員을 選出하기로 하엿다고 (高敞)

◇地方人事消息◇

◎金濟天氏 (本報高山支局長) 는 支局事務를 帶하고 去二十六日午後發車로 向上京本社

◎曹亨瑾氏 同上 (高山)

◎高敞郡高敞公立普通學校三四學年生은 秋期旅行으로 同校敎員朴恒根氏引率下에 去月二十九日上午八時에 長城白羊寺에 갓다가 翌日下午七時에 歸校하엿다고 (高敞)

◇群山飮食店組合定總

群山府開福洞에 會館을 둔 群山飮食店組合에서는 來月三日에 同會館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한다는데 組合員은 多數來席하기를 希望한다고 (群山)

特志와 慈善

◎賻儀金을 寄附

大邱府京町鄭海鵬氏는 지난번 嚴親喪禮時에 들어온 賻儀金으로 別項과 갓치 各團體에 寄附하엿다고 (大邱)

▲慶北救濟會 二百圓 ▲明新女學校 二百圓 ▲大成學館 二百圓 ▲啓聖學校 二百圓 ▲達城幼稚園 百圓 ▲大邱運動協會 百圓 ▲大邱勞働共濟會 百圓

◎面長이 戶稅代納

慶北奉化郡小川面長權寧宇氏는 被任된 以來로 四年間 面長의 責任을 다하여 오든 바 지난 九月中에 洛東江汶水로 因하야 許多한 家屋이 流失하고 生活이 困難에 빠진 面民을 위하야 今年度戶稅 …

第五回全朝鮮蹴球大會

◇時日 十一月十二十三日兩日間

◇申請期日 十一月十日外지

◇場所 平壤崇實學校運動場

◇抽籤 十一月十一日下午二時 同會館에서

◇參加金 靑年團, 中學團 各五圓, 小學團 三圓

◇主催 平壤基督敎靑年會

◇後援 時代, 朝鮮, 東亞, 三支局

春香

春園 作

리별(四) 【第三十三回】

… 꾀꼬리가 울고 …

「어머님 나를 두고 어듸로 가시오…」 … 춘향이 울며 … 「도련님 어머님 … 다시 보옵나니까 …」

… 춘향이 고개를 들어 … 「어찌 가시오 …」

社告

本支局을 今般 安城驛前 … 으로 移轉하엿사오니 …

東亞日報 平壤支局 白

本支局記者 … 諸位는 이아라시압소서

東亞日報 沃川支局 白

本支局을 … 安城에 移轉하엿사오니 …

東亞日報 安城支局 白

本支局을 … 移轉하엿삽나이다

東亞日報 東部支局 白

一、名稱 培花分局

一、位置 安邊驛前

一、區域 培花面、瑞谷面

一、分局長兼記者 朴埈緖

右와 如히 分局을 設置하엿사오니 管內에 居住하시는 人士諸位는 … 購讀을 … 하시압소서

東亞日報 安邊支局 白

激增되는中國勞働者 今年에도二萬餘名入來

십개월동안인천을거쳐드러온수효 최근십개년간에십뉵만사천칠백명
威脅밧는朝鮮勞働者의將來

최근수년이래로중국인(中國人)의 로동자가 만히건너와서 조선사람 로동계급에 대한위협이 불소하다함은 이제금년일월 이래십개월간 인천항에 상륙한중국로동자의통계를보면

月別	入港者數	出港者數
一月	三三三名	一二三六
二月	二五七九	一一四〇
三月	五七四七	九三七
四月	三四〇八	八七五
五月	二九六二	七一八
六月	一三七四	九八四
七月	一三八九	七五六
八月	一二二八	八三三
九月	一五二九	五四六
十月	一三五七	九三六
計	二一九二六	八九六一

이러하야 금년이 아즉도 두달이나남아 잇는데도 입항자수가 이만일천구백이십륙에 출항자는 겨우 팔천구백여명인즉 금년에만 조선안에 퍼저잇는 수효가 일만이천구백여명인바 다시 최근 십년간통계로보면

年別	入港者	出港者
大正四年	二〇、八五七	九、一一五
五年	一三、〇三一	七、一三一
六年	一一、六六八	七、五一七
七年	一九、五七六	八、九〇五
八年	二二、八四三	五、九九三
九年	二二、一七〇	七、七二四
十年	一五、〇七一	八、一七〇
十一年	二三、〇八〇	四、五六二
十二年	二八、一九八	[illegible]
十三年	二九、二二〇	[illegible]
合計	二〇五、七一四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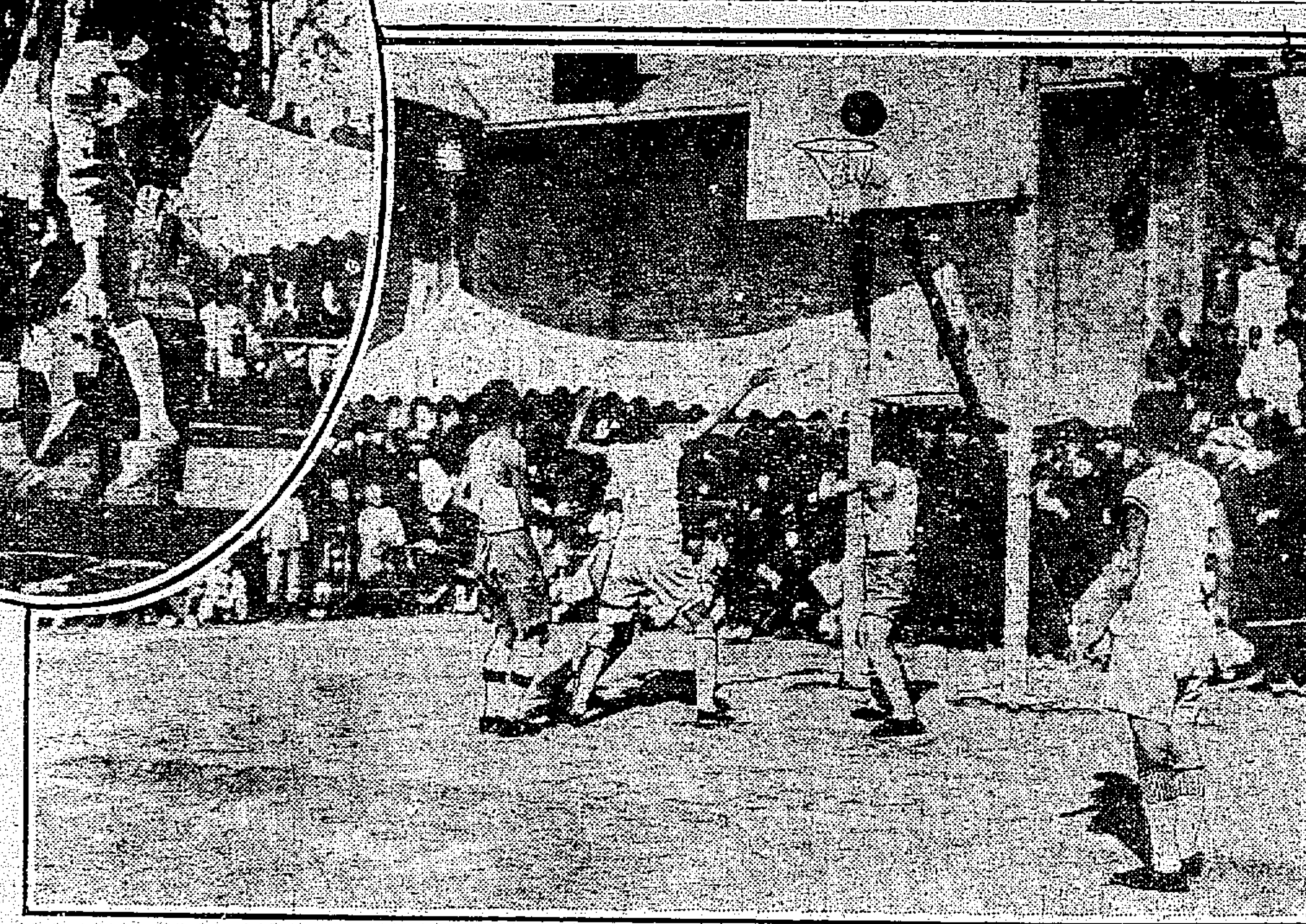
이통계로보면 해마다 건너온자보다 건너간자는 적어서 조선안에 퍼저잇는 수효가 작년까지 十三만이나되엿스며 최근 삼사년래로는 매년만명이상식 퍼저잇는 세음인데 그형세는 놀날만큼 해마다 격증됨은 통계가 증명하는바로 따러서 조선사람로동계를 위협하는형세도 자못놀날만 하다더라(인천)

眞犯被捉?

유력한혐의자

시내강도의진범인듯

하모바랍으(竹添町)세곳에강도가드러간사건으로인하야 소관서에서는 혐의자수명을인치하고취됴중이라함은 루보한바어니와 동서에서는 혐의자를계속하야 사방으로 수색하든중 삼십일오젼열두시경에 고양군연희면신촌리(高陽郡延禧面新村里)에 잠복하여잇는혐의자 한명을 톄포하야 동서에 인치취됴중이라는데 그내용은 절대비밀에부처 나누문한바에의하면 그는 원적을황해도 송화군련정면조령리(黃海道松禾郡蓮井面鳥嶺里)팔십륙번디에두고 일뎡한주소가업서 떠도라단니는 전과자로써 이십팔일밤 동 죽첨뎡에 강도사건이 이러나든날에 죽첨뎡에잇다가 변성명을하고 중림동(中林洞)으로 중림동에서 시내 태평통(太平通)으로 또다시신촌(新村)으로 경관의눈을 속히고 올마 단인것이라는데 그가 톄포될때의 차림차리와 그의 가진소지품등 증거물로 보든지 그가 동사건에 진범인듯하다는바 련루자들도 상당히잇슬모양이라더라



籠球大會盛況 白熱化한爭奪戰 昨日青年會舘後庭에서

不幸한죽엄들

각디에빈빈히잇다

鰒魚먹고

평북의주군광성면 미륵동(平北義州郡光城面彌勒洞)김원서(金元瑞)의집에유숙하고잇든 김봉(金鳳)이란 사람은 지난이십칠일 저녁에어대서 생선의내장을 사다먹고 어대로가든길에 로상에서 고민을하다가 맛참내 죽어버리엿다는데 그생선의내장가온데는 복어(鰒魚)의내장이 잇는듯하다하며 복어의 내장은 절대로발매치 못하는것이라하야 당디 경찰서에서는 그출처를 조사중이라는바 그시톄는 친척들차즐수가업슴으로 광성면소에서 가매장을하엿다더라(신의주)

砲彈에마저

밀양군밀양면내일동(密陽郡密陽面內一洞)김태언(金泰彦)의외아들김영준(金英俊)(一五)은현재 밀양공립보통학교 사학년에 재학중인근실한학생인데 지난 이십팔일오후에 그학교운동장에서 록상운동을 하든중 마츰그엽헤서포탄(砲彈)던지는 운동을하든학생박학쇠(朴學釗)(二〇)의던지는 포탄에 이셰든 나되는포탄에 김영준은바른편 아래배(腹下部)를마저혼도된것을 즉시의사에게 응급치료를 바덧스나 조금도효과를엇지못하고 이십구일 오후여섯시에 참혹히 죽고마럿다는데 그부모의 애통하는 광경은매우 비참하더라(밀양)

小兒凍死

황해도안악군은홍면청천리(黃海道安岳郡銀紅面淸川里)김원영(金元永)은지난 이십일일에 자긔아들과 소(牛)에나무를싣고 안악읍으로 나무를팔러갓다가 나무를팔고열두시쯤되여 자긔는무슨볼일이잇서서 자긔의 열살먹은 아들을소에게 태여서 먼저돌려보내고자긔는볼일을 보고 뒤를따라갓더니 집에가보즉 아들이오지아니하엿슴으로 엇던도적놈의 소위나아닌가하야 각방면으로 수색하든중 지난 이십칠일에 서하면(西河面)부근에서 그아해가죽은것을 발견하엿다는데 그아해는 치움을 익이지못하야 어러죽은것이라하며 서하면에서 죽은원인은 김원영의 소를얼마전에 서하면에서 사왓는바 어린아희가타고잇슴으로 그소가 자긔마음대로 녯집을 차저가다가 그와가치된것이라더라(안악)

軍刀로割腹自殺

정신에이상이잇는 일본사람순사가

전라북도고창군 심원면주재소(全北高敞郡心元面駐在所)에근무하는일본순사대소사랑(大沼四郞)은 지난달이십구일밤여덟시경에 동군고창면읍내리좌등다부치(高敞面邑內里佐藤多夫治)의 집에서 차고잇든 칼을빼여가지고 배를 그어자살코자하는것을 그집안 사람이 발견하고 제지하야 중상은하엿스나 생명에는관계가업슬터이라는데 원인은정신이상이라더라

社長이發起人걸어 二十萬圓請求訴

부산주일상회의소송사건

부산부수정뎡(水晶町)에잇는주식회사주일상회(主一商會)사장최태욱(社長崔泰旭)씨는 그회사의발긔인이던허만정(許萬正)씨외 구인을상대로 하야 이십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산디방법원에뎨긔하엿는데 최씨의주장은 허씨외구인이 회사의발긔인으로 불법한 주금십이만여원을 자긔사채보상에 쓴까닭으로 오개년동안의 영업리익금구만여원을 엇지못하게되엿슴으로 이번에 이와가치 합계이십여만원의소송을뎨긔한다는것이라더라(부산)

住民이사야할驛屯土들 日人個人에被奪

지금은일장이곤난하야 구령과도령에진정 다
小作人會奮起活動

충청남도 청양군뎡산면(忠淸南道靑陽郡定山面)역둔토소작인 사십여명은 지난이십일에 서뎡리(西亭里)에서 소작인회를열고 소위 일본인대기신오(大崎新吾)에게대하야

一、元來驛屯土는現小作人이買受하라는것이總督府의根本方針임에도不拘하고大崎가非人道的手段으로地主가되어야우리를農奴로만들엇스니우리는各自의小作權을正當하게買受하도록當局에陳情할事

二、前記事項을斷行키爲하야陳情委員五名을選定할事

三、陳情委員은道郡當局에陳情하야大崎新吾의驛屯土拂下契約을解除하게하되萬一道郡當局에서우리의本志를貫徹치못할時는總督府까지에陳情하야最後까지目的을貫徹할事

四、決議事項을斷行키爲하야小作人一同은物質及努力으로互相協力할事

이와가튼 결의를한후 진정위원박재관(朴在寬)외 사씨가 지난 이십칠일에 군수에게 진정하고 지난 이십팔일에는 공주(公州)에가서 도당국에 진정하엿다는데 좌우간 고이알흐로는 더욱더 진정할터이라더라

橫暴無雙

청양군뎡산면역둔토는조선국유의역둔토와 마찬가지로 그곳소작인들이 자자손손이 루백년동안을 경작하야 오든터인바 지나간대정칠년도부터 총독부 긔뎡방침으로 각디역둔토는 현소작인에게 년부(年賦)케도로팔게되얏슴으로 그곳소작인도 역시분배이되어 몃마지기씩이라도 사려고하얏지마는 그당시아산금융조합리사 일본인대기신오(大崎新吾)는 청양군뎡산면 역둔토를 자긔가사서 그토지를 경작할소작인에게 그토지를 분배하리라하야 가을의소작료를바다 년부로갑흘 생각이엇스나 그후로는 본래의목적을바리고 뎡산면에잇는 일본인에게 측량(?)을하야 식(?)을 주어(?) 로목태랑(栃木條太郞)과 공모하고 아모것도모르는 농민들에게 계약으로 만복천평(이백사십두락)을 소작인의 일홈을 버리고 가대주가되어 소작인에게 계약으로 경작권을 준다는내용의 그가튼 증서를 만들어논후 그해가을부터는 제법 디주행세로 무리하게 소작료를 밧기시작하얏다 하며 작년에는 무리한 세를 밧는등 횡포가 자심하야 소작인들은 ...

[illegible]

살되는쌔에부친의 ... 김병주(金炳周)씨에게 ...

金女史特志

평양부박구리(平壤府舊九里)백이십일번디 김영표(金泳表)(六四)녀사는 수원전에 자긔의소유토디 중화군당정면양나리(中和郡唐井面 ...)에잇는 ... 사립광성보통학교(私立光成學校)에 기부하엿다는데 그학교당국자는 물론이요 일반이 그녀사의 가상한뜻을 칭찬한다더라(평양)

自稱刑事强盜

순사에게잡혀

부인을속여다가

경성부(京城府) ... 김 ... 가로에서 ... (이하 판독 곤란)

生活難으로棄兒

원산부석우동(元山府石隅洞)팔십칠번디 ... 사는 ... 녀자는 ... (원산)

珠如意에龍蛟

士勇名十七 體裸半
空懸는球에輕快一進一退

◇中央基督教青年會主催本社後援◇

全朝鮮中等校籠球大會

중등학교『바스켓뽈』경기대회도 금년에처음으로 열닌 조선중앙긔독교청년회주최와동아일보사후원의데일회전조선중등학교룽구대회는예뎡대로지난달삼십일일 오전열시부터 긔독교청년회관후뎡에서 개최되엿다 아츰에 우물거리든 검은구름도 말끔히 개여 춤도뎐도안은 조흔가을날의쾌은볏밋헤서반라테의건강한 선수 칠십여명의 엄당식이거행된후대회위원김영술(金永述)씨로부터 선수일동에대하야 경기에대한 간단한주의가잇고 즉시 긔남에추첨한대로중앙고보 B조대 청년학관 B조의데일회 예선전부터 시작되엿다 마츰이날은 쉬이는날이라단테를짓지안은응원군이나마 그리넓지못한 회당이터질듯이구경군이 모혀드러『바스켓뽈』대회로는 전에못본녀성황을이루엇스며 각녀학교의『바스켓뽈』선수는물론 일인녀학생들까지 관람석의 한구석을 차지하야특색을낫하내엿다 선수들의묘한재조가 나리날때마다 종로바닥을 흔드는듯한 함성과박수는근래에드문종로거리의또한특색이엇다

第一回豫選戰

學舘B23-7E中央B

中央高普軍B組對中央基督青年舘B組의第一回豫選戰은定刻十時三十分부터金永述의審判으로始作 中央高普軍力戰하엿스나技術에若干遜色이업지안어上半戰에十二對一로十一點을失하고三分休息後에다시開戰하야挽回에努力하여六點을得하엿스나學舘은오히려十一點을得하야結局二十三對七로中央B組敗하다 (十一時十分)

中央B		學舘B
李允泳	F	鄭鈴三
金容喆	F	田相國
李戊俊	C	張東旭
金甲奎	G	黃乙秀
洪鍾瑞	G	李惠逵
Field G 2		Field G 11
Foul G 3		Foul G 1

徽文A13-8青年學舘A

徽文高普A對青年學舘A組의第一回豫選戰은十一時十五分에金鍾萬氏審判으로始作兩軍의陣容이매우充實하야前回보다幾分緊張味가잇다兩軍力戰하야相互攻擊에力을다하엿스나守備亦堅緊하야上半戰에學舘은徽文一로不過一點의差밧게업다下半戰에부터學舘軍陣勢不振하야徽文連勝의勢로徽文A組十二點을得하고青年學舘은不過六點으로結局十一時四十分에十三對八로徽文A勝을得하다徽文포드金宅東君의成績特出

徽文A		學舘A
金炳奎	C	朴方友
金奭中	F	尹俊善
金宅東	F	李丙奭
白淳楠	G	田根成
金化泳	G	閔丙琦
Field G 6		Field G 4
Foul G 1		Foul G 0

徽文A13-16中央A

徽文對中央A組의第二回豫選戰은十二時四十分金永述氏의審判으로開戰徽文A一回戰에好成績한지라期待가만헛스나據實한찻인지中央大振하야上半戰에벌써十六對二의스코아로勝하고下半戰에는徽文捲土重來의勢로應援軍의聲援에相和하야奮戰力鬪하야十一點을全勝하엿스나上半戰의失을完全히挽回치못하고結局一時八分에十六對十三으로中央이優勝하다試合中가장白熱

中央A		徽文A
金瑛範	C	金炳奎
姜成喆	F	金奭中
崔瑛南	F	金宅東
金命根	G	白映楠
曹秉學	G	金化泳
Field G 8		Field G 4
Foul G		Foul G 5

(以下明日)

第二回豫選戰

徽信B25-6善隣B

徽新對善隣B組의二回戰은張權氏審判으로十一時五十五分始作徽新初에一點을先得하야氣勢大揚하고繼續勇戰하야上半戰에徽新八善隣一下半戰에善隣士氣커상하야連敗의形으로失하야結局十二時三十五分에二十五對六으로善隣B大敗하다

徽新B		善隣B
白根元	C	殷興燮
金喆萬	F	張世德
李永基	F	金永基
吳鳳煥	G	黃範植
金永佑	G	金石奉
Field G 12		Field G 2
Foul G 1		Foul G 2

第二回抽籤

AB組의 第一回豫選戰이끗난後即時第二戰의抽籤을行한結果

A 組
中央對徽文
徽新對善隣
B 組
徽新對善隣
徽文對青學

◉天氣豫報

晴一時曇

昨日正午 [illegible]
昨日最低 [illegible]
昨年昨日正午 [illegible]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資本金五百萬圓

取締役社長 河內山樂三

京城明治町一丁目 電話本局 [illegible]番

生活上의一大威脅 두려운 火災季節

安全第一 火災保險

貴重한努力의結晶 家屋、家財、商品은 此際에반드시 保險에……

鮮滿各地에 代理店有함 電話又는葉書로 一報하시는대로 直時社員이 가뵈옵니다

早稻田大學六大講義錄

알기쉽고、親切한獨習機關

早稻田講義！

이것을닐어立身의鍵을잡으라

中學講義 / 高等女學講義 / 商業講義
一月二回發行 一個月學費壹圓拾錢 一個年半修了 / 中學만二個年

法律講義 / 政治經濟講義 / 文學講義
月二回發行 一ケ月學費壹圓貳拾錢 一ケ年半修了

申込次第 見本進呈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發行

一回一錠

トッカピン
도쓰가빈

求하라 줄것이다

現代醫化學의精華

全國海外到處藥店에잇소

戸塚醫學博士推奬

性慾衰退의復活을
愉快와精力의絶倫을
健腦와强精을
神經衰弱의回復을
히스데리-의一掃를

藥價 二十五錠 三圓 / 五十錠 五圓 / 百二十錠 十圓 / 二百八十錠 廿圓

發賣元 丁子堂藥房 東京·大阪

異常하게도男便을실혀하는女子가잇다

月經不順과帶下症을經驗할때、참고지안커나、참고친다고하드래도普通賣藥이나舊式의無害無効的의賣藥으로고치라면켠켠히子宮內膜炎이나痲道、히스데리가들것이되야여러가지로苦痛을합니다、쓴만아니라不姙症子宮의故障病으로부터、夫婦의사히、生殖의[illegible]가不感覺이되며、不快히되며、[illegible]이생기고、말하서男便을실혀하게됩니다、참으로무서운것은婦人病이나兹에이婦人病ㅣ子宮의故障病에는[illegible]

婦人藥 ヒポー

東京市九段坂下大通 橋本健藏藥房

價格五十錢 一圓 二圓 全國信用을重히하는藥店에서는[illegible]

理研비타민

理研ヴィタミンA
名(ビオステリン)

獨特의眞價를보라！

本品은世界的榮養素로効果의優秀하기幾多의同種品中에冠絶히다

數萬人의愛用者로부터確證된効果
◎小兒의發育促進
◎腺病體質의改造
◎老衰防止脚氣豫防
◎結核疾患의治療
◎産後病後의回復
◎榮養不良의回復
◎精力體力의增進

服用實驗集申込贈呈

定價 三六球入(〇·三瓦含有)金貳圓 九〇球入 金五圓 內地送料十二錢

同種品多數하니「理研」의二字에注意하시압

發賣元 藥品問屋 玉置合名會社 東京日本橋區瀨戸物町 振替東京七一二番

中將湯

秋風이蕭々하도다………

이지음에는一年中第一婦人의病이기쉬운때이니冷하지안토록잇지말고中將湯을잡수시요

中將湯의常用은補血補溫하야冷을따고不快한婦人特有한病을고치고사랑스러운子寶를엇을수잇습니다

잡수시요 豫防에！治療에！몸의健康을爲하야！

定價 [illegible]

主効 子宮病、血의道、白帶下、腹痛、腰足冷込、ヒステリー、不姙、月經不順、產前產後惡阻

一回의吸入 走筆一萬二千字

ウキワ印 파이롯도

パイロット高級萬年筆

自動吸入式 定價四圓以上

株式會社 並木製作所

WALTHAM

時！

冊子進呈 材料로본時計

郵便送料貳錢을振替口座東京三一七四九番 米國월삼時計會社에申込하시면時計冊子無代進呈합니다

ウオルサム時計
월삼

滋味잇는 크로스·와-드第二回懸賞

크로스·와-도파쓰루의懸賞課題 下의規定을보신後에應募하시기를바랍니다

一、賞金 参百圓 (一等 三十圓 二人 / 二等 二十圓 四人 / 三等 五圓 廿八人) (正解者多數의時는抽籤)

一、締切 大正十四年十一月十日 一、發表 十二月上旬(本紙에)

一、宛名 東京市丸ノ內仲通十號館 日本電報通信社調査課

副賞品 (下記를切取하신후封筒의表紙에「懸賞」이라고朱書할事) 正解者에게左의賞品七種中에서一品을三百名만抽籤에依하야贈呈합니다

一、十二金사이스十五石入 월삼時計 参個(副賞三等三名)
一、[illegible]
一、파이롯도高級萬年筆[illegible]
一、[illegible]

太陽生命保險株式會社

內容의堅實………
安心이되는………
配當金의만흔………

東京、京橋通

贈呈品案內

싸고 튼튼한

文化敷物

弊店工場에서精選한菅草를原料로하야數十年來製織하는것으로清楚雅致잇고耐久力絶大하고價格은低廉

一疊에對하야一圓卅錢、二圓五十錢以上(緣付無料)

室內敷、베란다敷、廊下敷、(階段敷)

各種陳列 見本郵券拾七錢

東京市京橋區築地三ノ十五 有楠川商店 文化敷物商店 電話 銀座六〇三三番 振替口座東京二九九五五番

東京市─三越、白木屋、松屋、高島屋、伊勢丹支部及全國有名敷物店에잇소

大阪市─白木屋、大丸、高島屋、心齋橋通岩崎商店

吾子의貯金에徵兵保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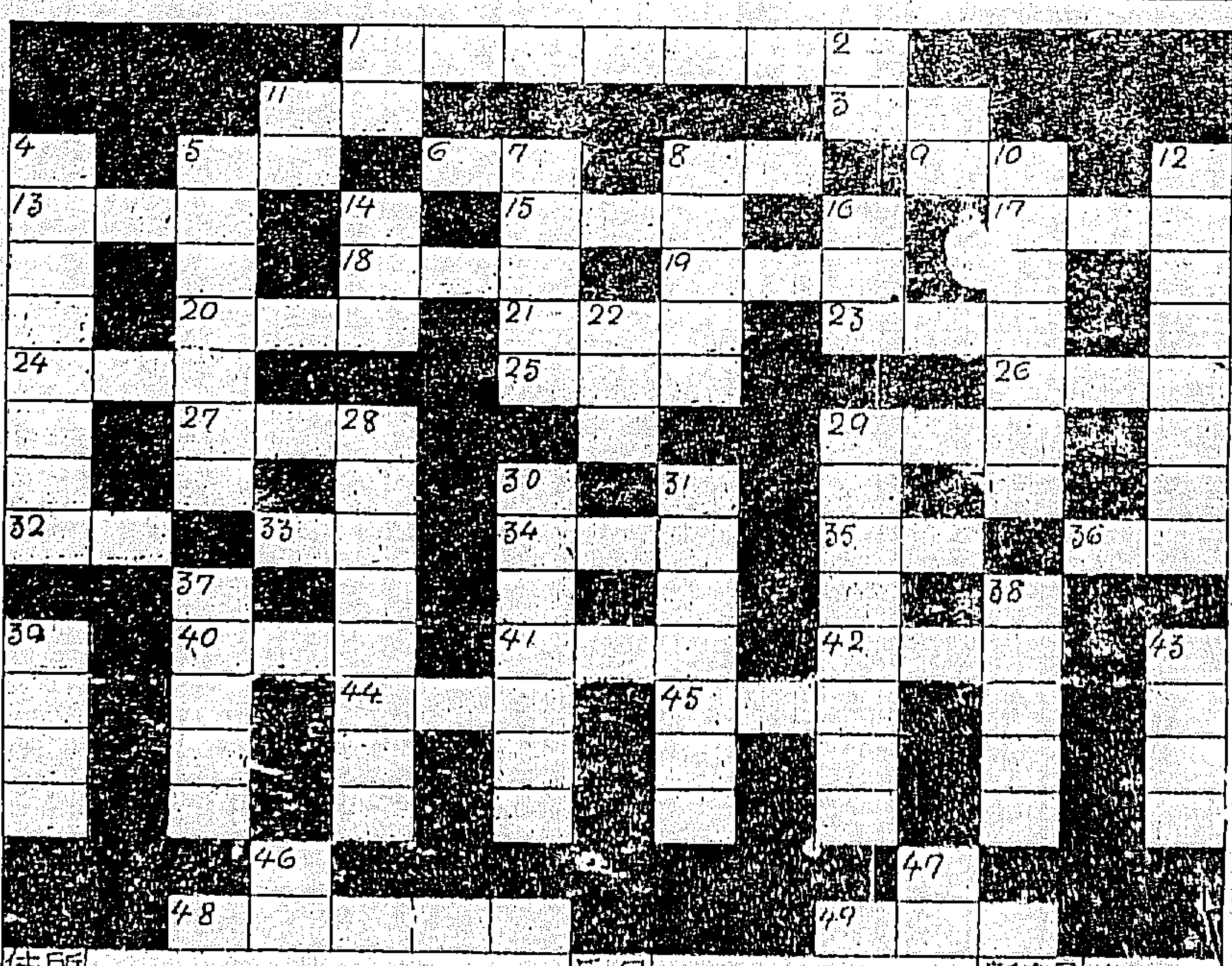
相互는有利하며安全第一

富國徵兵保險相互會社

◎高級外務員招聘 (案內書進呈 御申越次第)

社長 根津嘉一郎

本社 東京市丸ノ內有樂館
關東支部 東京市丸ノ內
關西支部 大阪市北區堂島ビルヂング內
名古屋出張所 名古屋市[illegible]內



住所 氏名 新聞名 東亞日報

横の鍵

1 安くて丈夫な△△△△△△
3 [illegible]
5 南米の[illegible]
6 九つの次
8 [illegible]
9 [illegible]に必要な物
11 [illegible]
13 [illegible]
15 [illegible]
17 [illegible]
18 [illegible]
19 [illegible]
20 自分の出た學校
21 四月の別名
[illegible]

縦の鍵

1 [illegible]
2 [illegible]
4 [illegible]
5 [illegible]
7 [illegible]
8 [illegible]
10 日本一の特許機關は△△△△
[illegible]

獨逸バイエル會社製造

西ケ原、群馬、岡山、長崎、其他試驗場有効證明

ウスプルン
우스푸룬

種子消毒 增收促進劑

麥其他의種苗及球根類植付에씌使用을바랍니다

地方各特約店에下命하심을乞함 未設置의地方은特約協議에應함

定價 五〇瓦(五反用) 一圓八十錢 / 一〇〇瓦(一町用) 三圓四十錢 / 二五〇瓦(二町半用) 八圓 十八錢 送料 / 試驗見本送料共 五瓦 二十五錢

實驗報告說明書等御申込次第無代贈呈

東京市麴町區丸ノ內仲通十二號ノ六 國際興農社 電話番號 牛込 五七二四番 振替口座 東京 六五一七二番

肺結核治療新藥

池田タウリン
(다우린)

(說明書郵呈)

本品은藥理合理的으로臨床上効果顯著한[illegible]

發賣元 合資會社 盛進洋行

動脈硬化症

文獻進呈

佛國學士院醫學兩部로부터賞狀授與

佛國 아루데로진 製藥

アルテロジェン

腦溢血(中風)豫防及治療劑로世界的定評이잇스며 東大、京大、九大諸博士가推奬[illegible]

適應症 ●動脈硬化症 ●腦溢血 ●糖尿病 ●半身不隨 ●腎臟病

[illegible]

佛國スデウスト會社 日本出張所 東京銀座三丁目

女性의健康을爲하야 家庭의幸福을爲하야 女性의恒常愛用品

喜谷實母散

[illegible]

世界的發明

タカヂアスターゼ
다가지아스다-제

胃弱特效劑

菓子界의焦點

[illegible]